

1995년도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
『농업기계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문 (1995. 7. 7)

자본재산업 육성 방안

김 동 철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과장

1. 머리말

정부에서는 1995.5.10 제15회 『新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재산업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에서 이와 같이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자본재산업의 육성이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대일역조를 시정하고 무역적자구조를 추진구조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고임금 체제하에서 국제경쟁에 이기기위해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데 자본재산업의 육성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번 『新부고』를 활용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재의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수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본재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화단계의 마지막 과제이며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범 정부정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본재산업의 자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21세기 우리의 내일을 짚어질 산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자본재산업의 현주소

가. 자본재산업의 정의

자본재는 직접 소비의 대상이 되는 최종 소비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소비재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재화를 말한다. UNTACD에서는 자본재산업을 기계공업전체(조립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제비교가 쉬운 장점이 있다.

금번 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본재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제외한 각종 기계류·부품·소재를 말한다. 금번 대책에서 제외된 품목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품목과 육성에 국제협력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항공기 등이다.

나. 자본재산업의 현주소

○ 자본재산업의 국가경제적 위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수는 2만 4천개로 86만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98.8%,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64.1%이다. 국민경제 내에서 자본재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GNP 비중이 80년 5.4%에서 94년에는 13.9%로 확대되었고, 총수출중 비중은 80년 22.9%에서 94년 49.8%로 확대되었다.

○ 자본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

자본재산업은 기술력에서 대부분의 기계류, 핵심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가공·조립 등 일부 생산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핵심부품과 설계기술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등 기술력의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자본재의 경쟁력 취약에 따라 주요산업의 설비수입이 많아 산업별 설비 국산화율은 반도체산업이 5%, 자동차 및 철강산업이 40%수준이며 가장 국산화가 많이 진행된 시멘트 산업도 75%에 불과한 실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기계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전기·전자는 대일수입역조가 심한 편이다.

	94		95.1~5	
	전체	대일	전체	대일
· 일반기계 무역수지 (억불)	△135	△75	△75	△40
· 전기·전자 " (")	128	△42	56	△21
· 자동차부품 " (")	△7	△8	△5	△3
· 소재 " (")	△17	△13	△3	△5
· 계 (")	△31	△138	△26	△69

3. 국산화사업의 추진

기계류·부품·소재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산업의 자립화를 위하여 86년부터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85.10월 G7 국가의 포고 합의에 따른 저환율과 유가하락, 국제금리하락 등 소위 3저현상을 활용하기 위하여 86년부터 91년까지 제1차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92년부터 제2차 5개년계획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국산화사업의 추진으로 86~94년간 총 7,032개 국산화대상품목을 발굴하여 4,202개 품목을 개발완료 하였다. 이를 위해 『공업발전기금』 개발자금 7,066억원을 4,087개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90년부터 94년까지 국산기계구입자금 25조 9천억원을 지원하여 국산기계의 수요창출을 지원하였다.

< 品目 發掘 및 開發實績 >

구 분	1차 계획	2차 계획			누 계
	86 ~ 91	92	93	94	
발굴품목	4,542	801	802	887	7,032
개발품목	2,212	563	727	700	4,202
개발중단 또는 실패	140	314	330	300	1,084

이러한 국산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86~94년간 118억불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왔고 기계류·부품·소재의 대일수입의존 비율이 86년의 57.4%에서 94년에는 38.7%로 감소되었으며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 비율도 86년의 42.8%에서 94년에는 28.9%로 감소되었다. 또한 기술의 축적에 따라 부품의 생산이 가속화되어 완제품의 국산화가 제고되었다.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 >

(단위 : 억불)

구 분	1차 계획	2차 계획				누 계
	86 ~ 91	92	93	94	계	
수입대체	44	12	12	13	37	81
수출증대	26	3	4	4	11	37
계	70	15	16	17	48	118

4. 당면 문제점

가.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

이러한 꾸준한 국산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본재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脆弱하여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본재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94년 전체 무역적자는 63억불로서 이중 31억불이 자본재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의 무역적자는 95억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본재수입은 대일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94년 대일 무역적자 119억불 보다 더 큰 138억불의 대일무역적자가 자본재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필요

산업화 과정에서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간의 격차는 지속되어 94년 산업생산 증가율은 경공업이 3.1%, 중화학공업이 13.9%로 10.8%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임금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공업은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부가가치대비 인건비 비중은 중공업은 49.6%인 반면 경공업은 59.3%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고임금 현상은 지속 될 것인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산업위주로 전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자본재산업육성 지원체계의 미흡

중전의 국산화사업은 중소기업개발지원 위주의 시책으로서 저가 단품위주의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첨단 핵심부품과 고가의 대형 기계류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수요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국산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수요확대 시책이 미흡하였다. 또한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技術·人力·情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고급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에 대한 유치활동 저조로 고도기술 부문의 국산화가 지연되었다.

5.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

자본재산업 육성의 필요성

자본재산업은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부품·소재를 만드는 산업으로서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좌우하고, 가격보다는 기술·품질이 중요시 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다. 또한 기술습득이 어려워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수입규제가 거의 없는 분야로 일단 경쟁력을 갖게 되면 수출 증대는 물론 개도국의 추격이 곤란한 분야이다.

최근 자본재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되고 있다. 『新루고』로 일본 자본재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은 고도기술분야에서도 해외이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우리 기술수준 및 SOC 등 주변산업여건이 동남아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 일본 기술 흡수에 유리하며 아울러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공업화 추진으로 인한 자본재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기회에 자본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데 민과 관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 금번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대책은 외산기계 수입대비 불리한 국산기계구입자금의 조건을 개선하고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술·인력·정보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통상마찰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수요기반 확대

지금까지는 국산기계구입의 금융조건이 외산기계구입에 비해 불리하여 외산기계구입을 유도한 것이 현실이었다. 즉 외화대출로 외산기계구입시 금리는 7%의 국제금리 수준인 반면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금리는 13~15%인 국내실세금리이므로 수요자가 국산기계 구입보다도 외산기계구입을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로, 96년까지 국내외 금융조건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96년중에 국제금리수준의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 규모를 1,2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96년중에는 외화대출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뿐만

아니라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화증발을 우려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정부는 이번조치의 보완대책으로 이미 5월초 대기어의 외화대출용자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춘바 있으며 이로인해 상당규모의 통화환수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안정 기조가 흔들릴 염려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기계류 수요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기계류 생산기업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토록 할 계획이다.

세째로, 기계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불수출자금을 95년 28,000억원에서 96년에는 35,500억원으로 늘리고 기계류 수출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나. 생산 지원 확대

현행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은 개발자금지원규모가 불충분하여 핵심기술개발과 대규모개발투자가 필요한 품목의 개발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다수품목을 소액지원하여 지원효과가 분산되고 있으며 표준화가 미흡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규모를 95년 1,200억원에서 96년 2,000억원으로 늘리고 품목당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며 필요시에는 특별한도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의 다수품목에 대한 소액지원방식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체와 공동개발하는 품목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대출심사시 『기술성』의 배점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세째, 자본재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4%)

에서 5%로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네째, 『표준화기획단』을 공업진흥청에 설치하고 표준화를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 품질보증업무 강화

우수제품을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않아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품질검사업무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인증기관은 공업기술원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고 국내외 자본재의 품질비교 평가를 하여 품질평가에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우수품질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국산기계가 외국기관의 품질인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해외시장기척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아울러 품질인증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강을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우수품질마크』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 보증지원도 강화하여 창업 1년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토록 함과 아울러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금에서 50%까지 자금을 융자할 방침이다.

셋째, 『우수품질마크』품목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발생시 제품가격 전액을 배상토록 하고, 이를 위해 기계공업진흥회내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하자보증기금에 정부와 민간이 50%씩 출연하여 기금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라. 기술·인력 및 정보 지원

우리나라 자본재산업의 경우 핵심부품과 설계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및 기능인력 공급이 수요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정보수

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되, 우선 전체 고교생중 공고생 비율을 94년 14%에서 2000년에는 22%까지 늘리고 공과대학의 정원을 전체의 (94) 56.4%에서 (95) 56.6%로 늘릴 방침이다.

둘째, 기능대학 등 2년 다기능기술자과정에 전문대 수료 학력을 인정하고 주·단조, 금형, 열처리, 용접 등 수요가 많은 단기직업훈련과정의 연수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째, 자본재산업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부문이나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특정연구 개발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설계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네째,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교육기자재를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최근 국산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핵심 애로기술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되 설계에서 부터 생산까지 일괄지원토록 하고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문의 외국인 기술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본재산업의 가장 큰 애로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중소기업 종업원수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지원을 강화하여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무하는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하여 자본재산업에 대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배정비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일곱째,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자본재산업이 밀집한 창원 등 공업단지인근지역

에 설치할 방침이다. 자본재산업종합지원센터는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 기술, 경영, 판로, 정보등 모든분야에 대한 종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 기술지원을 증계하여 공동전시·판매, 인증획득 및 외국과 기술제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 외국인투자의 저극 유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첫째, 지자체의 외국인기업 유치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미분양공단을 외국인기업에게 공단조성 원가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그 차액의50%(신규조성 30%)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다.

둘째, 광주 평동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조건을 개선하여 분양가를 인근 공단수준(평당 28.6만원)으로 인하조정 하고 임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년) 임대료를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세째, 일본 기자재의 수입을 다른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일본의 기자재 및 부품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네째, 우수외국인력의 체류 상한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입국후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18년으로 연장하여 우수 외국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대일투자유치사절단 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 부품, 전자 등 업종별 대일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일본의 『대한투자 조사단』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에 유치하며 95년 11월 동경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6. 21세기 자본재산업의 비전

이번에 수립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략품목의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대일수입이 수출의 2배 수준(94년)에서 2000년에는 1.5배로 낮아지고 10년 후인 2005년경에는 대일무역수지가 균형수준에 근접하게 될것으로 전망되며, 자본재의 수출규모가 94년도 478억\$ (총수출의 49.8)에서 2005년에는 1,500억\$을 상회함으로써 전체수출에서 6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경제는 후발개도국에 대해 뚜렷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전후(戰後)에 자본재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최초의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공히 우리경제의 세계화가 이룩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국가의 하나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